시민속으로 2017 / 8월 4주차

■ 연구원 주요일정

○ 08월 21일(月) :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 국제 독립운동 영화제 개최

: 8월 14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국제독립운동영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150여명의 회원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이번 행사에서 미얀마, 베트남, 한국 3개국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 세 편이 상영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영화 <예언>을 만든 부옹 덕 감독과의 대화는 대립과 갈등의 과거를 넘어 치유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깊은 울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815기념 학술대회 개최

: 우리 연구원과 광복회 전북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보훈처가 후원한 학술대회가 광복 72주년을 맞아 전주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적교류를 통해 본 전북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사회관계망 구성" 을 주제로 최제학, 조희제, 장현식 등 우리 지역 독립 운동가들의 인적 관계망 분석과 전북지역에서의 신간회와 조선공산당 활동에 대한 규명이 이어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70여명이 참가하여 높은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지역 항일 운동가 복원의 기운이 널리 확산될 것을 한마음으로 기원하였습니다.

○ 전병구, 문경득 회원 박사학위 취득

: 우리 연구원 전병구(전주 성심여고), 문경득(전주대 고전학연구소) 회원이 전주대 대학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연구자로 자신의 이름에 책임을 질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좋은 역사학자로 시대와 함께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 형지혜 회원 석사학위 취득

: 우리 연구원 형지혜 회원이 전주대 대학원 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회원 모두를 대신하여 축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 경기 용인지역회원모임

: 8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강원도 평창에서 용인지역 회원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변주승 상임이사와 최우영 사무국장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용인 지역 서정안 회장을 비롯하여 아홉분의 회원이 참석해 마음을 나누고 지부발전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회원의 날에 다시 만나길 약속하셨습니다. 먼길 마다않고 행사에 참석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구원 회원의 날 및 개원 기념 행사 안내

- 엊그제 개원 10주년 행사를 치룬 것 같건만 어느새 개원 11주년이 다가왔습니다. 연구원이 문을 연지 정확히 11년이 되는 오는 "**9월 2일(土)~3일(日) <1박 2일>**"에 걸쳐 회원의 날과 개원 11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원의 날은 장소는 "**전북 완주 초남이 성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 해 시설을 증축한 초남이 성지를 찾아 사업을 마친 하태진 신부의 헌신을 직접 목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포도수확 체험 및 인문강좌, 애장품 경매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디 많은 회원이 함께하여 경향각지의 좋은 기운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빌겠습니다.

행사 관련한 제반사항은 추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연구원에서 현재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 전화(063-286-3005), 최우영 사무국장(010-6275-0409), 이동학 행정실장(010-7137-6418)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회원의 날 및 개원 11주년 행사 일정표 ★

날짜	시간	내용	날짜	시간	내용
9월 2일 (土)	14:00 ~14:30	• 준비 및 등록 (방명록 작성, 이름표 배부 등)	9월 4일 (日)	08:00 ~09:00	• 아침식사
	14:30 ~15:00	• 집합 및 숙소배정 • 보물찾기 시작(19시까지)		09:00 ~10:00	• 순례길 답사
	15:00 ~17:00	• 회원의 날 공동체 행사			
	17:00 ~18:00	• 개원 11주년 기념식		10:00 ~11:00	• 경품 추첨
	18:00 ~19:00	• 저녁식사			
	19:00 ~20:00	• 애장품 경매			
	20:00 ~21:00	• 뒤풀이 - 풍등날리기 - 불꽃놀이		11:00 ~	• 귀가
	21:00 ~	• 자유시간			

○ 회원의 날 벼룩시장 개장 안내

: 매년 애장품 경매를 통해 회원들이 아끼던 물건들을 나누는 훈훈한 모습이 있었지만 비교적 고가의 제품들이 출시되어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에 올해 회원의 날은 벼룩시장도 개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소소한 물건이고 지금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에게 소중한 애장품으로 바뀔 수 있으니 머뭇거리지 마시고 많은 물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대상은 누구나 물건 역시 누구나이며 거래는 현장에서 즉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시연(時緣)" 원고 및 표지사진 모집 안내

- **2017년도 시연의 표지에 연구원 사무국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닌 회원의 손때가 묻은 사진을 사용하여 의미를 살리고자 합니다.** 연구원 기관지 시연의 표지로 장식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사진이 있으시면 메일이든 우편이든 보내주십시오. 아울러 원고도 함께 모집(특정 주제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싶은 것으로)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정되신 회원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 연구원 신규 회원 가입

: 8월 15일 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전주를 찾은 고려대 **"윤효정"** 박사께서 흔쾌히 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거주하시는 **"변동재"** 님께서도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함께 시간 나눌 수 있길 빌겠습니다.

○ 전북도민일보 “광복 72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좌담회”

- 8월 14일 전북도민일보는 “광복 72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좌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래는 좌담회 전문입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은 2017년 오늘. 전북도민일보는 올 들어 일제의 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나라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 일생을 바친 전북출신 항일운동가들의 혼(魂)을 되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목숨까지 기꺼이 바쳐 항일운동을 펼쳤음에도 오늘날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채 과거에 묻혀져 가는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잊혀져 간 이들의 고귀한 넋을 달래고, 업적을 되살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시국에서 국가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광복 특별좌담회를 가졌다.

▲ 참석자
이강안(광복회 전북지부장)
변주승(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장)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장)
윤상원(전북대 사학과 교수/전라문화연구소장)
홍성덕(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사회 : 한성천(전북도민일보 부국장)

▲ 일시·장소 : 2017년 8월 14일(월) 10시30분, 전주역사박물관

#. 광복절보다는 독립기념일이 적합

▲ 한성천 :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 실험을 거듭하고 있어 국제사회에 핵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관과 안보관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은 슬픔을 겪었고 극복해냈습니다. 그간 항일운동사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72주년을 맞는 광복절에 대한 느낌이 남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강안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광복되었음을 기억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상당수 자치단체는 3.1절 기념식이나 광복절 경축행사도 않고 넘어갑니다. 우리의 정신은 어디로 가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변주승 :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하고 그 전통을 계승할 때 오늘날 남북 갈등을 극복하고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희 : 광복이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광복군을 비롯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해 조선의 존재감과 독립의 당위성을 피력한 것이 연합국 승리 후 조선의 독립을 끌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윤상원 :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이 되지 못하고 광복절이 되었다는 점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15일은 엄격히 말해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날, 즉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을 선언한 날입니다. 우리가 따로 독립기념일을 제정하지 못하고 일제의 패망일을 광복절로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의 독립을 우리의 손으로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적 의미에서 72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 진정한 독립기념일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홍성덕 : 우리는 아직도 친일문제에 대한 역사적 청산을 이루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분단 이후 누적된 한국사회의 적폐도 제대로 풀지 못했던 친일문제 청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역사가 정립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역정신도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

▲ 한성천 : 이강안 지부장님께서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광복절을 대하는 마음이 남다르실텐데 소회는.

▲ 이강안 : 얼마 전까지 광복의 의미를 폄훼하고 역사를 오도하려는 지도자, 일부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틀어진 교과서를 만들고 건국절을 논하는 등 국가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명한 국민들이 앞장서서 지켜주시어 나라다운 나라로 가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72주년 광복절을 기하여 지난날의 적폐를 바로잡고 순국선열들을 우러러보며 그 높은 뜻을 계승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한성천 : 향토역사연구에 정진해온 이동희 관장님과 변주승 교수님께서 광복절을 맞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텐데요.

▲ 이동희 : 매천 황현이 나라가 망하자 음독 자결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조선의 그 대단했던 선비들이 얼마나 조선과 운명을 같이했는지, 또 우리지역은 어떠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광복 70주년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전북출신으로 일제강점기 자결해 일본에 저항한 자정순국자를 찾아보았더니 17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밝혀지지 않은 한말 의병과 독립운동가들이 많고, 또 국가유공자로 서훈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지역정신도 지역발전에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선양하는 일에 지역이 힘을 다해야 합니다.

▲ 변주승 : 그동안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전북 지역사 연구는 농업사나 종교사 등 특정 분야에 치중되었던 면이 큽니다. 우리 전북지역의 의병운동사와 항일운동사 독립운동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해당 분야 연구에 대한 관계 기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동학농민혁명이 항일운동으로 이어져

▲ 한성천 : 전북출신 항일운동가들이 일제의 눈을 피해 중국으로 넘어가 독립활동을 많이 했는데 중국에서의 항일운동 내용 중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지, 또 전북지역 항일운동의 특징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 윤상원 :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이후 수많은 지사들이 국경을 넘어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그중에서 중국의 상해는 많은 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상해가 동아시아 최대 국제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상해에는 외교독립론을 주장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직접행동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열단과 애국단이죠. 1930년대 상해에는 의열단과 애국단에 버금가는 독립운동단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화한인청년연맹입니다. 이회영 선생이 참가한 단체입니다. 이 남화한인청년연맹을 주도한 사람이 전북 출신의 화암 정현섭 선생과 구파 백정기 선생입니다.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전북 출신 항일운동가들이 아나키스트였다는 점은 아마도 동학농민혁명의 전통이 항일운동에까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홍성덕 : 역사적으로 전라북도(전라도)는 늘 새로운 세상을 갈망해 온 땅입니다. 정여립의 대동세상이나 동학농민군이 꿈꾸었던 세상, 천주교인들의 신앙은 불의한 세상을 바꾸어 살기 좋은 미래를 이루려는 것에 맞닿아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항일운동은 이러한 지역적 문화전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일의병에서 독립운동까지 나라를 지키려는 노력은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독립'이라는 깃발 아래 모여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유생은 물론 기독교인, 천도교인, 여성 등이 항일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항일'에는 이념도 종교도, 사상도 모두 같았습니다. 전북지역의 3·1운동은 천도교와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첫 만세운동이 군산선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전주, 익산 등의 만세운동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고 사회주의자들 역시 전북지역의 항일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 일제강점의 처절한 역사 잊어선 안 돼

▲ 한성천 : 과거는 어제의 오늘이고, 미래는 내일의 오늘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아 오늘을 사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행동해야 할 각오에 대해 말씀 부탁합니다.

▲ 홍성덕 :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신이 곧 항일·독립정신이기도 합니다. 분단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일·광복정신을 일본의 식민지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 윤상원 : 중국으로 망명한 대표적인 전북 출신 항일운동가들은 아나키스트였습니다. 모든 착취와 차별을 거부하고 만인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구파 백정기 선생과 화암 정현섭 선생의 꿈은 우리에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선생의 꿈을 실현하고 광복절을 독립기념일로 완성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항상 고민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 이동희 : 우리는 일제강점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광복 72주년이 남북분단 72년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독립운동을 전개해 광복의 밑거름이 되었듯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이강안 : 광복은 단순히 억압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나라와 주권, 국민들의 자주적 정신을 되찾은 것을 말합니다. 순국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광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어가는 마음으로 우리국민의 자랑인 자주정신을 되살려 끝없이 번영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 한성천 : 광복72주년을 맞아 공사로 바쁘신 분들을 한자리에서 장시간 국가와 민족의 소중함을 다시 새길 수 있도록 고견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자소개

- 맹호연(孟浩然, 689-740). 중국 당나라의 시인이다. 이름은 호이며, 자는 호연이며 호(號)는 녹문거사(鹿門處士)이다. 양양(襄陽) 사람으로 절개와 의리를 존중하였다. 한때 녹문산(鹿門山)에 숨어 살면서 시 짓는 일을 매우 즐겼다. 40세 때 장안(지금의 시안)에 나가 시로써 이름을 날리고, 왕유, 장구령 등과 사귀었다. 그의 시는 왕유의 시풍과 비슷하며, 도연명의 영향을 받아 5언시에 뛰어났다. 격조 높은 시로 산수의 아름다움을 읊어 왕유와 함께 '산수 시인의 대표자'로 불린다.

▌작　품

歲暮歸南山(세모귀남산)	**세모에 남산으로 돌아오며**
北闕休上書(북궐휴상서)	북쪽 대궐에 글 올리기 그만두고
南山歸敝廬(남산귀폐려)	남산의 낡은 집으로 돌아왔으니
不才明主棄(부재명주기)	재주 없어 명주께서 버리셨고
多病故人疏(다병고인소)	병이 많아 벗들도 멀어짐에
白髮催年老(백발최년로)	흰 머리는 노화를 재촉하고
靑陽逼歲除(청양핍세제)	봄빛은 한해가 가기를 다그쳐
永懷愁不寐(영회수불매)	끝없는 시름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
松月夜窗虛(송월야창허)	소나무에 걸친 달이 밤 창에 비추누나.

▌감　상

- 이 시는 맹호연(孟浩然)이 나이 마흔에 長安에 와서 진사시에 응시하였으나, 급제하지 못하고 양양(襄陽)으로 돌아가서 지은 작품이다. 진사시에 낙방한 뒤에 황제에게 직접 글을 올리는 것은 당대 독서인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으나 맹호연은 그것을 포기했다. 글을 올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중간의 '不才明主棄(부재명주기) 多病故人疏(다병고인소)'라는 말은 그 정황을 묘사한 것이다. 첫 구의 '北闕休上書(북궐휴상서)'는 '不才明主棄(부재명주기)'와 호응하면서 불만과 고뇌를 표현하고 있다.

■ 발로 쓰는 유럽 풍경 * 김천식(한고연 전임연구원/문학박사) [열 세번째 이야기]

<아테네 국립고고학 박물관 National Archaeological Museum of Athens>

여행에서 박물관, 미술관을 찾는다는 것은 보고 먹고 즐기는 것을 위주로 하는 여행과는 좀 다른 의미가 된다. 박물관은 격조 있고 보람 있는 여행이 되게 해 준다. 그것은 물론 전시된 유물 또는 미술품을 관람하는 것이 지만 그 과정에서 그 나라의 깊이 있는 문화를 체험하게 되고 오랜 역사를 느끼게 된다. 그러한 경험은 삶에 정신적 영양소로 축적되고 일상생활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작용을 하며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 준다.

아테네 국립고고학 박물관은 오모니아 광장에서 북쪽으로 난 큰 도로를 따라 걸어가면 10분도 채 안 되는 곳에 위의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 입장권을 사고 입구로 들어서면 미케네 전시실이 먼저 맞이한다. 이곳은 이름대로 미케네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미케네는 기원전 2천년 경 크레타 문명이 이전 되어 기원전 천이백년까지 문명을 꽃피운 곳이다.

미케네 왕국을 독일사람 슐리만이 발굴하여 가공의 얘기로만 여겨졌던 신화의 세계를 현실로 이끌어내었다. 슐리만이 발굴한 미케네의 황금 유물들이 아테네의 고고학박물관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곳의 소장품은 비단 미케네의 황금유물뿐만이 아니다. 무려 50여 개가 넘는 전시실에는 고대 그리스가 숨 쉬고 있다. 에게해 키클라데스 제도에서 발견된 '현금을 타는 인물상'과 '피리 부는 인물상'은 사람의 형태를 절제, 단순화 시킨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 현대 조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매우 훌륭하다.(제6전시실) 또한 수니온 곶의 포세이돈 신전에서 발굴 된 크로스상(제13전시실), 그리스 신화의 인물인 포세이돈 청동상(제15전시실) 등 수많은 고대의 유물들이 잠시나마 신화의 세계로 인도한다.

찬란했던 과거의 문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문화유산을 잘 보전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박물관 안에서 느끼게 된다.

■ 나의 문화유산 연재기

* 최나래(한고연 회원 /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지난 달 말 충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로 전해지는 농다리(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8호)가 일부 유실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고려 초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이 다리를 다시는 걸어서 건너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응급 복구가 마무리되어 이번 달 중순부터 통행이 재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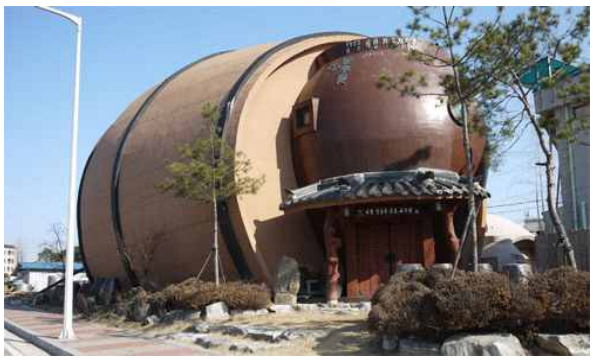
중부고속도로 진천IC와 증평IC 사이 교각 아래에 있는 농다리를,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며 내려다만 보다가 2012년 어느 봄 월요일 혼자서 다녀온 적이 있다. 당시는 조선왕릉전시관에서 근무했었는데, 월요일이 휴관일인 관계로 다른 친구들이 모두 출근해 늘 혼자 여행을 다니던 때였다.

동서울터미널을 출발한 버스는 두원공대, 광혜원을 거쳐 1시간 40분만에 진천터미널에 도착했다. 당시 진천에서 유명했던 육면으로 든든히 점심으로 먹고 초평저수지 근처의 농다리로 이동했다. 중부고속도로 교각 아래에 다다르자 미호천을 가로지르는 농다리가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초평저수지 뒤 언덕의 정자에서 바라 본 농다리>

길이 93.6m, 폭 3.6m, 높이 1.2m에 달하는 농다리는 편마암의 일종인 자줏빛 돌을 지네 모양으로 쌓아 만들었다. 혹시나 물에 빠지지 않을까 조심조심 건너기 시작했는데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사람이 있으면, 지네 다리 쪽으로 피해있으면 되었다. 지금 건너도 이렇게 튼튼한 다리가 큰 비가 내려도, 세찬 바람이 불어도 천년의 시간 동안이나 이 자리에서 그대로 버텨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농다리 건너편, 초평저수지 뒤에 있는 높은 언덕에 오르면 정자가 있어 농다리를 내려다볼 수도 있다.

진천터미널을 출발해서 덕산에 들려 동서울터미널로 향하는 버스가 있어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잠시 덕산양조장(등록문화재 제58호)에 들렸다. 덕산양조장은 당시로는 유일하게 등록문화재로 등재된 양조장으로(2014년 7월 양평의 지평양조장이 등록문화재 제594호로 등재되었다) 그 유명한 덕산막걸리를 생산하는 곳이었다.



<덕산막걸리를 생산해내는 세왕주조의 덕산양조장과 전시관>

1930년 목수 성조운에 의해 세워진 덕산양조장은 백두산에서 가지고 온 목재 널판으로 외부를 마감해하고 보온을 위해 왕겨를 벽체와 천장에 채우는 등 건축물로의 가치도 뛰어나지만, 3대에 걸쳐 전통주 제조 기술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다. 덕산양조장 바로 옆에는 덕산막걸리의 생산과 유통을 책임지는 세왕주조에서 마련한 전시관도 있다.

'보고'만 오기가 아쉬워 술을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덕산양조장을 나오며 덕산막걸리 1병을 구입했다. 서울행 버스 시간이 좀 남아 버스도 기다릴 겸 근처 순대집에 들려 순대를 안주 삼아 몇 모금 홀짝하고 돌아왔다.

농다리가 잘 복구되었는지, 그리고 덕산막걸리도 마실 겸 진천에 다시 한번 다녀와야겠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들리지 못한 대한성공회진천성당(등록문화재 제8호)도 들리고...